

위급상황 신속대처... 3년내 중앙컨트롤타워로

이대서울병원을 가다

(中) 국내 첫 임상통합상황실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2명 상주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벤치마킹
2022년 커맨드 센터 도입키로



조도상 전략기획본부장.

전면에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생체 신호)을 나타내는 모니터들이 빼곡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물론 일반병동에서도 실시간 살펴야 할 중환자들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다.

오른편에는 신속대응팀(RRT) 화면이 떠있다. 80~90세 고령층, 중증 암환자 등의 이름과 병명, 진료과, 주치의가 모두 표시돼 있다. 혈액 검사 결과, 바이탈 등 각각 환자들에 필요한 수치의 기준점을 미리 설정하고, 실시간 수치가 기준점 아래로 떨어지거나 치솟으면 알람이 작동한다.

이곳엔 두명의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가 상주한다. 이들은 경도가 올리면 바로 담당 주치의에 연락해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 이대서울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임상통합상황실(Clinical Command Center)'의 모습이다.

임상통합상황실장을 맡은 조도상 이대서울병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지금부터 3년 후에는 병상 가동은 물론, 병원 전체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중앙

통합상황실 'Capacity Command Center'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해 말 GE헬스케어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임상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위급 상황을 담당 의료진에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화의료원 경영진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을 찾았다. 존스홉킨스 병원은 현재 중앙통합상황실(Capacity Command Center)을 운영 중이다. 이대서울병원은 내년 까지 아이디어를 모아, 2021년 조직개편 등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2022년 존스홉킨스와 같은 커맨드 센터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이대서울병원은 GE헬스케어의 시스템을 도입한 전세계 12개 병원 중 하나이며, 국내 첫 시도"라며 "존스홉킨스의 사례를 벤치마크해 이대서울병원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내년쯤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통합상황실이 활성화되면 간호사 두명이 상주하던 공간은 20~30명이 모이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원무과는 물론, 병상을 배분하는 간호팀, 엠블런서, 닥터헬기 응급 수송팀, 대외 진료 협력팀 까지 한 자리에 모인다.

조 본부장은 "각자 전화로 연결해야 했던 일이 한 공간에서 직접 눈을 맞추

며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존 10분 이상 걸리던 일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한 병상 가동률이다. 최대 95%까지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본부장은 "병상은 100%를 돌리기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95%가 최대치로 본다"며 "중앙 통제 시스템이 가능해지면 환자들의 입퇴원 회전을 높여 병상을 늘리지 않더라도 병상 가동률을 9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혜택은 환자들에 돌아간다. 편의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본부장은 "입퇴원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 진단과 처치, 입원과 수술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사라진다"며 "병원 측에서도 인력관리나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비소세포폐암 항암신약 임상경과 공개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임상 2상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포지오티닙'의 추가 적응증 확대 가능성을 탐색한 새로운 연구자 임상 경과가 공개된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연구 중인 포지오티닙의 연구자 임상 2상 경과를 세계 폐암학회(WCLC)에서 공개한다고 6일(현지시간 기준)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연구자 임상 경과에는 기존 특정 유전자(Exon20) 돌연변이에 의한 비소세포폐암 뿐 아니라 Exon18 변이 환자 및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 저항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포지오티닙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펙트럼 프랑수아 레벨 CMO는 "현재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거나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Exon20 변이 외에도 다양한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써 포지오티닙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MD 앤더슨과의 협력을 통해 도출한 이번 연



한미약품 본사 전경.

구 경과는 포지오티닙의 역할을 입증하고, 추가적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5년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에 라이선스 아웃했으며,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항암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스펙트럼은 현재 포지오티닙의 본임상 연구인 ZENITH20(글로벌 2상,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 등)을 7개의 코호트로 확장해 다양한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스펙트럼은 올해 4분기 중 코호트1 연구의 주요 결과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일동제약 '아토피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美서 특허

일동제약은 아토피피부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유래물질 'RHT-3201'과 관련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RHT-3201은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 DCC 3201'을 열처리 배양 건조한 물질이다. 이번 특허는 이 물질의 제조 방법 및 제조물, 이 물질을 활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용도 등에 대한 것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4~2016년 아주대

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팀과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RHT-3201에 대한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해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지수 개선, 피부 상태 호전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동제약은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RHT-3201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으며 올해 안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추석연휴 전국 응급실 521곳 24시간 진료

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서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 제공

추석 연휴 전국 521개 병원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15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민간의

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13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테라' 공식 맥주파트너 선정

하이트진로 청정라거 테라가 세계적인 미식가이드 미쉐린 가이드 서울과 손잡았다.

하이트진로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청정라거 테라를 공식 맥주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국내 맥주 브랜드를 공식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관계자는 "테라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철학은 미식 문화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쉐린 가이드의 방향성과도 잘 부합하여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새로운 공식 맥주 파트너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맥주는 오랜 시간 한국 전체 주류시장의 5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류 중 하나로, 한국의 식음 문화와 함께 발전해 온 점에 주목했다.

하이트진로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쉐린 가이드가 테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한 만큼, 국내 시장에



지난 4일 진행된 파트너 조인식에서 오성택 하이트진로 상무(왼쪽)와 이주형 미쉐린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맥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념해 하이트진로와 미쉐린 가이드 서울은 지난 4일 하이트진로 사옥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공식 맥주 파트너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하이트진로 오성택 상무, 미쉐린코리아 이주형 대표이사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식 파트너 선정을 축하했으며,

대한민국 미식문화에 대한 양사의 관심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공식 파트너사가 된 하이트진로 테라는 오는 10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주최하는 '미쉐린 가이드 고메페어2019'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미쉐린 가이드 서울과 함께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대한민국 대표 맥주를 향한 테라의 노력이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공식 파트너사 선정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쉐린 가이드 서울과 테라가 대한민국 미식 문화를 알리는데 브랜드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는 지난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장자 판매를 돌파하며 맥주 브랜드 중 출시 초기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다. 이어 101일 만에 1억병 판매, 160일 만에 2억병 판매를 돌파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